

## 원크라이 기도회, 10주년 기념기도회 내년 1월 2일 개최

“한국교회 치유·회복의 포문 여는 자리 될 것”

2026 대한민국 국가기도회 10주년을 맞은 제10회 원크라이(ONE CRY) 기도회 개최를 알리는 기자회견이 11일 경기도 평촌새중앙교회(담임 황덕영 목사)에서 열렸다. 행사 취지와 방향을 설명하고, 당일 메신저와 찬양팀 등 전체 프로그램 구성을 공개했다.

제10회 기도회는 2026년 1월 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12시간 동안 평촌새중앙교회에서 열린다. 올해 주제는 ‘여호와 라파’(출 15:26)로 정해졌으며, 국가적·사회적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의 연합 기도와 영적 회복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았다.

조직원인 이날 기자회견에서 행사 당일 메신저와 찬양을 맡을 사역자 명단을 함께 발표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황덕

영 목사를 비롯해 박동찬 목사(일산광림교회), 김문훈 목사(포도원교회), 박은주 목사(세은혜교회), 안광복 목사(상당교회), 김상준 목사(예수문화교회)가 말씀을 전한다.

찬양은 블루워십, 더워십, 로드웨이브, 워십퍼스, CCC 투어팀, 브이워십 등이 맡으며, 브라미언·박광팔·이철규·장한아·장광우·강동현 등이 특송으로 참여한다. 합심기도는 원크라이 지역 본부장단이 인도하며, 북한 선교를 포함한 12개 기도섹션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황덕영 목사는 원크라이 기도회의 지난 10년을 언급하며 “원크라이는 특정 개인이나 교단이 아닌 한국교회 전체의 연합을 목표로 시작된 기도운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 국면마다 한국



원크라이 기자 간담회가 열리는 모습. (왼쪽부터) 김상준, 황덕영, 오인석 목사 ©노형구 기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기능해 왔으며, 10년간 지속된 것은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기도를 요구하신 결과”라고 밝혔다.

황 목사는 올해 주제를 선정한 배경에

대해 “한국교회와 사회 내부의 아픔이 심화된 상황에서 치유와 회복의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회가 먼저 치유를 경험해야 사회 속에서 치유자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통회와 자복을 통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목사는 2026년 한국교회의 방향과 관련해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도 성령의 역사도 이뤄질 수 없다”며 “엘리아가 7번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듯, 한국교회도 기도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이번 집회에서 정치적 입장을 조율하고 성경에 기초한 시대적 메시지를 선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인석 목사(능곡감리교회)는 이번 기도회를 “회개와 재 헌신을 요청하는 자리”라고 규정했다. 그는 “한국교회가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는 영적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며,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고 다음 세대로 영적 유산을 전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상준 목사는 원크라이 기도회의 출범 과정을 설명하며 “2016년 국가적 혼란

속에서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철야기도와 새벽기도의 회복을 향한 마음이 포함돼 있었으며, 지속을 가능하게 한 것은 섬김과 헌신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목사는 “역사적 부흥운동은 기도로부터 시작됐다”며 이번 기도회가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촉매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향후 계획도 밝혔다. 그는 “내년 3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유럽 목회자 대상 ‘원크라이 유럽 기도회’ 관련 설명회를 진행한다”며 “기도운동이 유럽에도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기도회에는 북한을 포함한 12개 항목의 합심기도가 진행되며, DMZ 내부 성탄 행사 및 2025년부터 민통선 지역 교회 섬김 등 북한 선교 지원 활동도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형구 기자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 말살… 인터넷 영역의 차별금지법”

동반연·진평연 등 11일 성명 내고 과방위 통과 강력 규탄

시민단체 동반연(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과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11일 성명을 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 과방위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일 과방위를 통과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해당 개정안이 사실상 “인터넷 영역에서의 포괄적 차별금지

법”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개정안은 인종·성별·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 또는 중오심을 선동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단체들은 이러한 규제가 시행될 경우 “동성애, 성전환이나 제3의 성(젠더) 등을 반대 또는 비판하는 의견, 표현을 SNS, 인터넷, 유튜브, 블로그 등에 게시할 경우 불법정보가 되어 유통이 금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종교계 인터넷 신문이나 유튜브에 게시되는 성직자의 설교도 “규제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안이 명예훼손 관련 조항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로 확대함으로써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졌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예로 “동성애·성전환·제3의 성 등이 유전이 아니라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라도 허위조작 정보로 간주돼 금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불법정보 게시자에게 부과되는 손해배상 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 시정명령 불이행 시 부과되는 형사처벌, 그리고 언론·종교계 인터넷 매체에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던 모습. ©뉴스시스

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는 “언론사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에 해당하며, 특히 ‘중오심’이라는 표현이 명확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연방대법원의 Snyder v. Phelps 판례 등을 언급하며 혐오표현도 보호받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규약이 규제 사유를 민족·인종·종교로 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개정안은 “포괄적 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국회가 국제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성급히 온라인 증오표현

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민주사회의 근간이 허물어지는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성전환·제3의 성 반대비판 의견과 표현을 인터넷, SNS, 유튜브 등에 게시하는 것이 금지되고 위반 시 무거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고 설명하고, 이는 “우리나라가 반민주 젠더 이데올로기 독재 국가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연 기자

## 기장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 공식 홈페이지 개설

“총회 홈페이지 언론 통제” 비판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환 목사, 기장 동반대)가 최근 공식 홈페이지(<https://prokanti homo.org>)를 개설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교단 내 동성애 및 쿼어 신학 확산을 막기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공지를 통해 “총회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기장인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차단됐다”며 총회사무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위원회는 “새로 개편된 홈페이지에 ‘글쓰기’ 기능이 사라졌고, 10년 이상 축적돼온 ‘제안과 나눔’ 게시판의 수천 개 글이 전부 삭제됐다”고 밝히고, “모든 글이 관리자 승인 후에만 게시되도록 한 것은 사전 검열이자 언론 통제이며 1980년대식 독재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위원회는 “수차례 원상회복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설명하고, 교단 구성원들의 가입과 기도, 후원을 요청했다.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는 두



기장 동성애 동성혼 반대 전국 선교대회에 참석한 이들이 단체사진 촬영에 임하던 모습. ©기장 동반대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는 성평등(성별 정체성·성적 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는 것이며, 둘째는 교단 내에서 쿼어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을 퇴출하고 신앙고백에 근거한 교단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종교와 지역, 시대를 넘어 연대해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를 막고 건강한 가정과 성문화를 지켜낼 것”이라며 “한국기독교장로회 신앙고백을 지키려는 목회자·장로·평신도들과 함께 거룩한 사역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기장 헌법 신앙고백서의 해당 조항을 인용하며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고, 일남일녀의 결합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 질서”라고 강조했다. 노형구 기자

**올림픽공원이 바로 앞! 강동구청역 초역세권!**

# 에스아이팰리스 올림픽공원 아파트

**롯데월드타워**

한성백제역, 평화의 문, 몽촌토성역, 올림픽공원, 성내천, 강동대로

한강, 서울아산병원, 잠실대교, 광나루한강공원, 성내유수지체육공원, 강동구청역

**에스아이팰리스 올림픽공원 아파트**

※본 홍보물의 CG 및 이미지 컷들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PALACE** 올림픽공원 **서울 도심에 전원 아파트!**

에스아이팰리스 아파트

**강동구청역 도보 5분**

**초·중·고·대학교 도보권**

**아산병원 1.5km**

**집앞은 올림픽공원**

KYOBO 교보자산신탁 문의 **02.486.4388**

서울 에스테이트건설(주) (주)엔건설